

# 세계수영대회 열기 더하는 전시 나들이 어때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전시회와 미술행사가 눈길을 끈다. 미디어 창의도시 광주의 특성을 살린 전시와 청년작가들의 패기를 만나는 전시, 한여름밤의 눈 조각전 등 다채롭다.

### ◆광주비엔날레 '눈 조각전'

'광주폴리와 크라운해태가 함께하는 눈 조각전'이 13일 오후 6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 분수대 주변에서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비엔날레, 크라운해태 임직원 및 관계자, 광주지역 작가,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해 대형 눈 조각(가로 1.1m x 세로 1.1m x 높이 1.6m) 24점을 다양한 아이디어로 현장에서 제작한다. 또 완성된 눈 조각마다 조명이 켜지면서 포토존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여름밤의 눈 조각전'을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오프닝 기간에 맞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광주로 유치했다.

광주 폴리 제작지원 등 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크라운해태는 이날 시민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제공할 예정이다.

###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기획전

광주문화재단의 2019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기획전 'RE:Born City'가 오는 8월 31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 338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지정 5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는 '미디어아트'라는 장르를 통해 바라본 도시 이야기를 담았다.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8기 입주작가 5명이 참여했다.

임용현은 도시를 '디지털 은하계'라 여기며 복잡한 신체계를 가진 알고리즘 사회로 진화하며 도시 생태계와 사회의식을 넘어 우리의 삶도 변화했음을 묘사하고 백나원은 다시 태어날 도시를 위해 인간이 제시해야 할 미래 방향성을 논한다.

작가 수요일(최석영)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감성·치유의 도시를 VR을 통한 가상세계로 보여 주며 유지원은 개인이나 집단의 기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 흔적들에 관한 도시의 이야기를 전한다.

김명우는 '광주'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아픔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다. 문의 062-670-7493.

### ◆광주아트가이드 '광주청년작가' 전

광주아트가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시회를 준비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술의 거리 bhc 갤러리27번가에서 열리는 전시에는 30세 이하 청년작가들이 참여해 참신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여름밤의 열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김연호·박다혜·권예슬·하승원·이다애·노은영·임형준작가 등 모두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은 전시 장소가 호프집인 터라 늦게까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저녁에는 작품을 감상할 수 없는 갤러리의 한계를 넘어 퇴근 후 새벽 2시까지 전시된 작품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를

실시간 시청할 수도 있다. 또 작품 구입도 가능하다. 오프행사는 13일 오후 5시 열리며 외국인 밴드 드리머스가 축하공연을 맡는다. 062-434-8615.

### ◆조선대학교미술관 '물, 생명, 상상력' 전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설치작가 6명을 초청한 전시다. 박선기 작가는 나일론 줄에 매달린 숯들의 집합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리 조형예술가 김형중 작가는 유리로 만든 수백명의 인물 군상을 전시한 '실루엣'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티스트 박상화 작가의 작품 '무등판타지-사유의 기상정원'은 관람객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거닐 수 있고 바닥에 놓인 빈백에 편히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화전민의 삶을 포착해온 금민정 작가의 작품은 영상과 소품을 통해 평화로운 너머에 있는 '현실'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밖에 김인경 작가는 군장처럼 보이는 배낭을 연결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치작품을 선보이며 물고기·식물 등을 활용한 정기현의 설치작품도 눈길을 끈다.

그밖에 한국서예협회 광주지회(회장 김국상)가 주최하는 '아름다운 광주전'은 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고경숙·기명혜·임재규·정찬홍·전명욱·한상운 등 55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오프닝 행사 13일 오후 4시. 문의 062-222-8053.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어린이문화원 광장영예 공공미술 프로젝트그룹 '숨, 쉬다'(오혜선, 오수연 작가)의 '물고기의 꿈'을 설치했다. 답답한 도심에서 일상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을 담은 작품으로 풍선 재질의 30cm~2.5m의 다양한 크기의 물고기 500여 마리가 역동적으로 하늘을 나는 모습을 연출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1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크라운해태는 13일 '한여름밤의 눈 조각전'을 연다. 지난해 행사 모습.
-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물고기의 꿈'
- 3 bhc 갤러리27번가에서 '한여름밤의 열정'을 주제로 열리는 청년 작가전.



'한여름밤의 눈 조각전' 13일 5·18민주광장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기획전 'RE:Born City' 8월까지 미디어338 31일까지 30세 이하 청년작가 초대 '한여름밤의 열정' 전



## '춤이 말한다'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 17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삭 온 스크린)'이 현대무용 '춤이 말한다'를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상연한다.

이번 작품은 지난 2014년 12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국립현대무용단이 공연한 '춤이 말한다'를 다큐멘터리화한 영상이다.

'렉처 퍼포먼스' 무대로 꾸며진 당시 공연뿐 아니라 무용연습실, 흥대, 선유도, 대학로, 야외 공간 등 여러 장소를 오가며 촬영된 장면을 교차 편집했다.

직업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무용수의 부

상이나 변형 등 구체적인 신체에 주목했다는 특징도 있다. 출연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무용을 에워싼 환상을 비평한다.

청명무용단 대표이자 한국전통무용수 오철주, 'Collective A' 예술감독 현대무용수 차진영, 피핑통 무용단의 김설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용걸,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스트리트댄서 '디퍼'(김기현)가 출연한다.

입장료 무료(선착순 100명). 문의. 062-670-7934.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세자매' 연기자 공개모집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나상만)이 제 14회 정기공연 '세 자매'에 출연할 연기자들을 공개 모집한다.

오디션은 오는 24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에서 진행되며, 약기 연주나 연기 능력을 갖춘 경력 및 신인배우를 대상으로 총 18명의 연기자들을 선발한다. 심사는 '지정연기'와 '자유연기', '특기' 순서로 이루어지며, '지정연기'에서는 '세자매' 중 한 역할을 선택하여 1~2분 내로 표현해야 한다.

연극 '세자매'는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으로 리얼리즘 연극의 명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공연은 오는 11월 21~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며 연출은 광주시립극단 김지훈 상임연출이 맡는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이메일(gidrama@hanmail.net)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11-2759.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청년자립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청년라이프디자인워크숍-청년자립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생 전환기 청년들을 응원하고,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교육단체 '예기치 못한 기쁨' 김천을 대표가 함께 기획·운영하며, LG 카이 홀맨 디자이너로 유명한 '가슴 시각개발연구소' 박활민 실장, 태이움직임연구소 신희홍 소장이 특강강사로 참여한다. 오는 23일부터 9월 28일(매주 월요일)까지 모두 열 번의 만남으로 꾸려지며 주말에는 워크숍이 예정돼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 오리엔테이션 및 인문학 특강 ▲라이프디자인워크숍 : 특강, 전시관람, 통합 의식 디자인 ▲자립프로젝트 : 집, 텃밭 완성 및 Zine제작 ▲결과공유회 등이며 빛고을아트스페이스와 광주 일대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20~30대 청년들로 오는 21일까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구글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20명을 모집하고 참가비는 무료. 문의 062-670-5762, 577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기다림'

### 아름다운 수채화 오경민 개인전, 31일까지 LH휴랑갤러리

수채화가 오경민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 본부 1층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The Signa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화려한 꽃들을 소재로 한 작품이 선보인다. 전시 주제 '시그널'은 오래된 과거가, 자연이 주는 '신호'를 의미하며 작가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호응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수채화 물감이 광목천에 자연스레 번지는 효과를 살린 작품들은 화사한 꽃들이 돋보이며, 특히 소녀 등 회색 빛 연필 드로잉으로 묘사한 다양한 인물 군상들은 과

거를 상징하고, 꽃무더기와 어우러져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순수미술 서양화 전공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을 전공한 오 작가는 현재 광주·전남 수채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꽃이 되어 피어나라' 등을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으며 은암미술관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는 담양 남촌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린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기원 객실 25% 할인 판매

신양파크호텔

행사기간 2019년 7월 10일 ~ 28일  
예약/문의 062-228-8000 / 221-4114

www.shinyangparkhotel.com